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제 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위대한 전승절을 뜻깊게 기념한 제8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탑앞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쟁로병들을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억척불변하는 우리 공화국의 주춧돌 다진 가장 영웅적인 세대, 백철불굴하는 위대한 조선 인민의 전형으로 내세워 주시며 모두가 로당익장하여 한생을 긍지높이 빛내여가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둬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촬영장소에 차넘치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조국에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7.27의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세기를 이어 빛내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세계만



사회주의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은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불멸의 공적과 하나로 잇닿아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가 후손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원천이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승세대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이 땅, 한생토록 애국의 성실한 자욱을 새겨온 조국강토를 전체 인민이 부럼없는 복락을 향유하는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 락원으로 꾸려나가실 철석의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전쟁로병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격정의 눈물속에 앞을 다투어 다가서는 전쟁

방에 힘있게 펼쳐가시는 불세출의 강철의 령장 이시며 백전백승의 기치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넘친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류레없이 가렬 처절하였던 혁명전쟁에서 피어린 군공으로써 미제국주의의 날강도적인 침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계승해나가야 할 조국수호와 혁명보위, 계급성전의 훌륭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백발을 머리에 인 오늘에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

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기둥이 되어주는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에게 다시금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존엄높은

로병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고 모두가 건강장수하기를 바라시며 오래도록 뜨거운 인사를 보내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전승절에 즈음하여 7월 28일 우의탑을 찾으시었다.

화환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화환들의 땀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말이 씌여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동의 위업을 위해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한전호에서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련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우의탑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력력히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빛나는 전투적

위훈과 공적은 불멸할것이며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격난속에서 더욱 굳건해진 조종천선은 사회주의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더불어 대를 이어 계승 발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7월 28일 제8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만나시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오메에도 뵈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대전당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한생의 가장 큰 소원을 성취하게 된 강사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중앙홀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우리 조국의 영원한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는 승리자들의 대축전에 불러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둬 안겨주시는 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성지를 지켜선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사상의 전초병, 근위병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있는 강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은 당의 전승령도사를 대중에게 체득시키는 직접적담당자, 핵심들이라고 하시면서 높은 정치리론수준과 능란한 강의술, 해박한 지식으로 강의를 통속적이고 생동하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하여 우리 인민과 인민

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을 혁명의 1세, 2세대처럼 당과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결연한 혁명가들로 역세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승리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승혁명사적부문 강사들과 일군들에 대한 우리 당의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사적지관리사업과 교양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안겨주시신 하늘같은 믿음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위대한 년대의 영웅적투쟁정신과 기쁨을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새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영원한 녀트로, 투쟁과 전진의 무기로 깊이 심어주는 힘있는 선전자, 교양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짐하시었다.

본사기자